

밸런타인데이 '셀프 기프팅' 확산



▲ 지난해 미국 소비자의 약 40%가 자신을 위한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구매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에서 비혼과 싱글 인구가 늘면서 밸런타인데이 등 기념일에 스스로 선물하는 '셀프 기프팅'이 늘어났다.

14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미국 성인 인구의 절반이 거의 미혼이고, 많은 사람이 낭만적인 관계를 원치 않는 세대 속에서 밸런타인데이가 다른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전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 소비자의 39%가 밸런타인데이에 자신을 위한 선물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에 맞춰 업체들도 '셀프 기프팅'을 강조하는 새로운 판매 전략을 세웠다. 대형 쇼핑몰 타깃은 하트 표시가 된 티셔츠와 스웨터를 판촉하며 "당신의 가족과 바로 당신을 위해 안성맞춤"이라는 문구를 앞세웠다.

란제리 판매업체 '어드모어 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은 있어라. 이것은 밸런타인데이를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선물"이라며 속웃을 판매했으며 한 핸드백 판매 업체는 "당신으로부터, 당신에게로(From You, To You)"라는 메시지를 앞세워 마케팅을 펼쳤다.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혼인 미국인의 56%가 연애나 가벼운 데이트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한 온라인 식당 예약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밸런타인데이 식사예약의 약 3분의 1은 솔로이거나 3인 이상의 모임을 위한 것이었다.

'핫플' 결혼식장 된 교도소

알 카포네가 수감됐던 옛 교도소가 결혼식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동부주립교도소가 이색 결혼식장으로 뜨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교도소는 1829년부터 1971년까지 142년 동안 펜실베이니아주 최대 교도소 역할을 했다. 시카고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와 은행 강도 윌리 서튼 등 악명 높은 죄수들이 수감됐던 곳으로 유명하다. 1965년 국가 유적으로 등재됐으며,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로렌 보크마이어와 유진 잔다는 "이 교도소는 독특한 결혼식 장소"라면서



▲ 동부주립교도소에서 결혼식을 올린 커플 사진. 사진=뉴시스

서 교도소 측이 하객 55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푸드트럭을 불러 한식인 김치 상추쌈과 파전 등을 피로연 음식으로 제공했으며 외벽 훼손 우려로 장식을 걸 수 없었지만, 꽃장식으로 식장을 꾸밀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부가 평일 결혼식 대관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은 3600달러.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대관 비용은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부주립교도소는 4월부터 8월까지 결혼식 대관 예약을 받는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따른 비싼 난방 비용 등이 이유다.

WSJ은 "교도소 결혼식은 교외의 야외 결혼식장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이 탄 차량 흡연 금지" 도입 확산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어린이 동반 시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앨라배마, 아칸소,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메인, 오리건,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등 11개 주가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유에스뉴스는 전날 미국의 11개 주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차량 안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주 또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전국 어느 주보다 성인 흡연율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어린이를 동반한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최근 주 의회는 16세 이하의 사람이 동석했을 때 차량에서 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하원 통과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과거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아징거 상원의원은 주정부는 부모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아징거 의원은 "법안에 대한 주장은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주장"이라며 "이는 부모들이 차 안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 시간

OC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수요일 오전 10시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목요일 오전 10시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인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